

# “상견례 제대로 다시 할래요”...8인모임 완화에 환호성

### 상견례·유아동반모임 8명...돌잔치 99명까지

### “첩보작전 같은 상견례 치뤄...풀려서 다행”

### “돌잔치 허용 환영...그래도 소박하게 할 것”

오는 5월 새 신부가 되는 직장인 A(31)씨는 몇 주 전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견례를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인원 제한 때문에 양가 부모님 4명만 식당에서 모여서 혼수나 신혼집 얘기 등 민감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다. 상견례가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었던 만큼 A씨와 예비신랑은 옆 건물 카페에서 초조하게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중간중간 부모님과 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 전화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상견례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A씨는 “약속을 두 번이나 미루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상견례 같지도 않은 상견례를 했다”며 “너무 속상했지만 이제라도 제한이 풀려서 다행이고 양가 부모님과 다같이 모이는 자리를 한번 더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앞으로 당분간은 A씨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부터 상견례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린다. 그리고 돌잔치와 아이들 포함 동반 모임 제한 역시 풀려 예

부부와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나온다.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김호진(31)씨는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과 나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얼굴도 모르는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하지 않느냐”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결혼 준비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필수적인 상견례조차 할 수 없도록 인원을 제한했던 게 얼마나 황당한 조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네티즌 B씨는 “원래 양가 어머니와 저희 예비부부 둘이서만 보기로 했다가 이번에 아버지들도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돌잔치 인원 제한 수가 99명까지 풀린 것 역시 환영 목소리 일색이다. 다만 현 상황상 제한 선까지 꼭 채워 부르는 않고 소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많다. 생후 92일이 된 아들은 둔 40대 박모씨는 “아직 돌이 많이 남았지만 당장 99명을 불러 돌잔치를 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아기도 아기지만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고 했다. 경기 고양에 사는 30대 장모씨는 “돌잔치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아기 위주인데, 아기 첫번째 생일에 그렇게 위험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유아 동반 모임이 8인까지 풀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 나온다. 만 1세 아들을 둔 이모(33)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 아이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돼서 좋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돌봄부담과 활동제약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4일 신규 백신 접종자는 1074명이다. 2월26일 이후 17일간 누적 접종자는 58만8958명이다. 전 국민(5182만5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1.14%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유나기자



**‘미세먼지 억제’ 도로 물 뿌리기** 수도권-충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1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암동 일대에서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북구는 미세먼지 발생 및 확산을 막고자 앞으로 한 달간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례로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상습 행패에 경찰관까지 폭행 40대 취객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술집 앞 인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다, 이

를 만류하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길가에서 ‘집에 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행법 체포 이후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 올해 확진자 11% ‘18세 이하’...개학 후 7~15세 확진률 ↑

3월 개학 첫 주 확진, 개학 전의 106% 증가  
학생 집단감염 30건...어린이집·유치원 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11%가 18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개학 이후 초·중등생(7~15세)의 확진 비율이 높아졌는데 교내 보다는 주로 보습학원을 통한 감염·전파 사례가 더 많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12일까지 1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만2859명 중 학령기 연령(3~18세)은 3587명이었다. 비율로는 전체 확진자 대비 10.9%다. '7~12세'가 1291명(34.0%)으로 가장 많다. '16~18세' 862명(24.8%), '13~15세' 733명(20.9%), '3~6세' 730명(20.4%) 순이다. 주간별로 보면 3월 개학 후 첫 주인 10주째 학생 확진자는 313명으로 개학 전 2월 평균(295명) 대비 106% 증가했다. 개학 2주째인 11주에는 학생 확진자가 318명으로 더 늘었다.

2월 이후 발생한 학생 집단감염은 총 30건이다. 유치원·어린이집 17건, 학원 관련 8건, 고등학교 3건, 대학교 2건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감염의 경우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원생과 가족으로 통한 추가 전파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학 후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첫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단체 합숙 생활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대학교 집단감염은 지인 간 유희 시설에서 모임을 통해 전파됐으며, 이 중 기숙사 거주 대학생이 감염됐지만 입소 전 검사를 통해 기숙사 내 전파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학 후 학원 집단발생은 주로 보습학원에서 일어났다.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시·도별 학령기 연령대 확진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227명·11.5%)였다. 뒤이어 서울(876명·8.8%), 인천(204명·11.9%),



광주(196명·18.5%), 대전(136명·39.3%), 경북(134명·15.2%), 부산(110명·7.6%), 충남(102명·12.0%), 경남(86명·9.6%), 대구(85명·10.2%), 강원(76명·10.5%), 충북(61명·8.3%), 울산(57명·16.0%), 전남(50명·15.4%), 전북(42명·10.2%), 제주(33명·19.0%), 세종(18명·19.4%), 검역(14명·6.7%)순이다. 전체 연령 발생 대비 학령기 연령 발생률은 대전(39.3%)이 가장 높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개학 이후 학령기 연령 중 3~6세 발생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7~15세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교내 집단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